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 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9월 창간

1946년10월 26일 창간 | 제 2866호

Honam Shinmun

2020년 2월 12일 (음력 1월 19일) 수요일

메르스 잊었나…신종 감염병 막을 전문병원 감감 무소식

市 · 조선대병원, 예산까지 배정받고 3년째 행정 절차만

올해 준공 목표 물거품…음압병상 절대부족 당분간 계속

지난 2015년 메르스(MERS · 중동호흡기증후군)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신종 감염병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이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 환자를 격리해 전파를 차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방안으로 꼽히면서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감염병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11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감염병전문병원이 재차 주목받고 있으나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한 광주시와 조선대병원은 수년째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제기됐던 전문인력 부재 · 전문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함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키로 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고, 권역별 지정에 나서 호남권은 같은 해 8월 조선대병원이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신설되면 일반환자 및 중환자용 격리 병상과 수술실, 검사실 등 첨단시설을 활용해 신종 감염병과 고위험 감염 환자 등을 진단 · 치료하고, 호남권 공공 · 민간 감염병 대응인력의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광주시와 조선대병원은 국비 408억원을 지원받아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에 36개 음압병상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키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새로운 시설에 대한 경험 부족과 부지 확정, 병상 설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애초 올해까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었으나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오는 2022년에나 병원 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시와 조선대병원은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와 교육부 부지 사용 승인, 설계 심의 · 입찰 등 절차를 밟느라 늦어졌다고 항변하지만 권역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이후 3년 가까이 행정 절차만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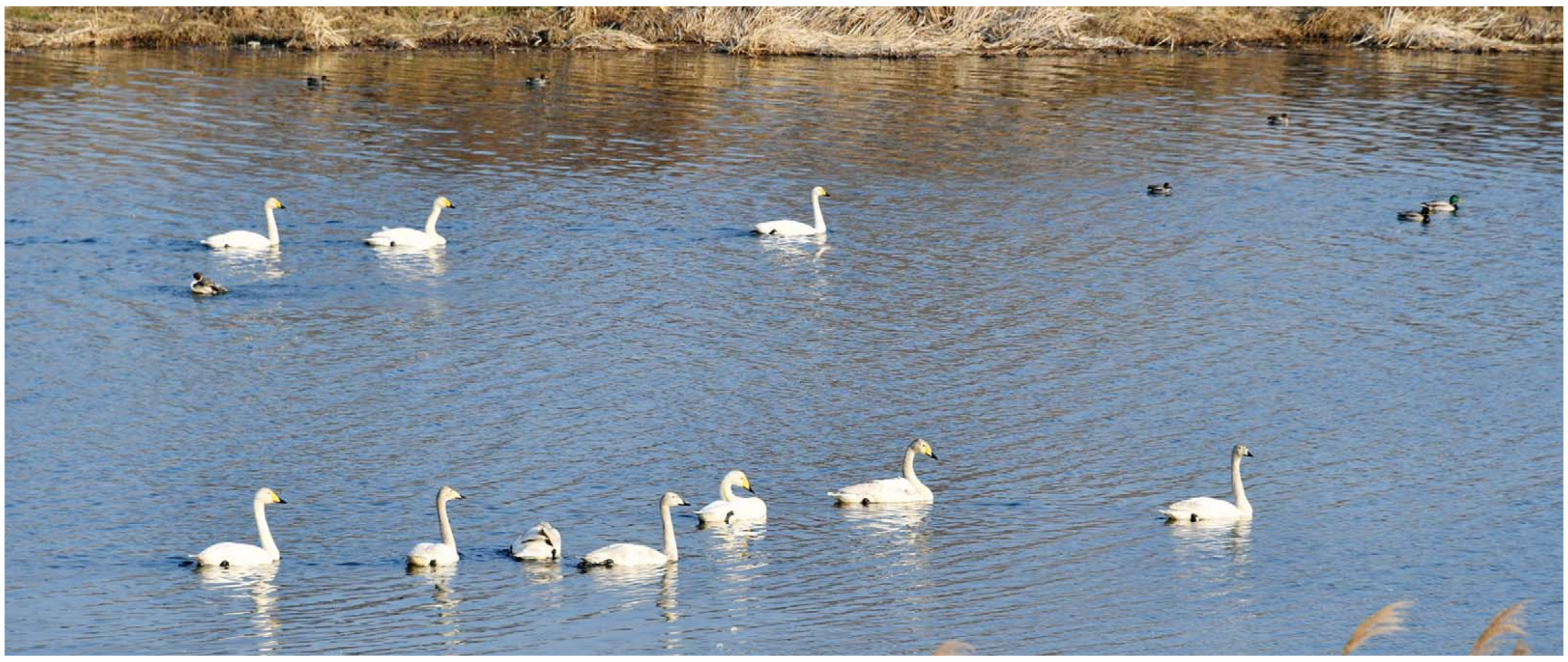
더욱이 국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다른 권역보다도 우선 호남권에 전문병원을 시범 설치키로 하면서 설계비 등으로 이미 2018년에 28억2천200만원을 배정해주었으나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한감염학회는 "지난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문병원 건립을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5년이 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대규모 감염병 위기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반복될 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서둘러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여러 부처와 기관이 얽혀 있는데다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다보니 애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 전남에는 음압 시설을 갖춘 국가 지정 치료 병상이 전남대병원 7개, 조선대병원 5개 등 12개뿐이다.

김경석 기자



백조의 호수 백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겨울 철새 '고니'가 11일 담양군 수북면 남산리 영산강 상류에 모습을 나타냈다. 러시아 북부 툰드라와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는 고니는 천연기념물 제201호로 지정된 보호동물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 사진제공=담양군

겨울대파 추가 시장격리

198ha 30억 상당 …역대 최대

전남도는 최근 수급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대파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차 채소가격안정제사업 시장격리에 이어 도 자체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으로 30억원 상당의 198ha를 추가 시장격리에 나선다.

이는 올해산 겨울대파 총 359ha(1만3천t), 61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이로써 겨울대파 미출하량 일부를 포전에서 정리하고 시장 출하량을 줄여 실질적 가격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시장격리는 지난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확보한 도 자체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비'를 활용해, 신속하고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장격리 기준보전액은 10a(300평)당 151만2천원이다. 이번 시장격리 지원 농가는 차기 영농과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서둘러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시장격리를 마무리해 겨울대파 가격 회복 및 농가 경영안정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대책은 도가 중심이 돼 주산지 시군, 농협, 농업인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며 "향후에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겨울 대파 전국 재배 면적의 97%를 차지하는 전남은 올해 작황이 좋은 반면 소비 감소 등으로 도매가격이 평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면서 농가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허성은 기자

민주당 후보 전략공천 현실화되나…

최기상 전 판사 영입 확정…광주 동남을 선거판 요동

21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동구남구을(동남을) 선거구가 요동을 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전략공천설'이 11일 민주당의 4 · 15 총선 인재 20호로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발표되면서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최 전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25기)을 수료한 뒤, 광주지법 · 인천지법 · 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올랐다.

특히 그가 전남 영암 출신으로 고등학교(살레시오고) 때까지 광주에 살았다는 점에서 지역구 후보로 나설 경우 동남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는 지난 7~8일 이틀간 동남을 선거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벌이면서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한 이병훈 전 광주시 부시장 등과 함께 최 전 부장판사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이슬 기자

<2면으로 이어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